

# ‘KIA 재건’ 풀어야 할 3가지 숙제

## 3월 9일까지 日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오키나와로 떠난 KIA 타이거즈가 ‘육성’, ‘완성’, ‘적용’이라는 숙제 풀기에 나선다. KIA 선수단이 지난 31일 인천 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다. 이들은 오키나와 킨 구장을 중심으로 내달 9일까지 훈련과 연습경기를 소화하면서 2019시즌을 준비한다.

지난 시즌 절박한 5위 싸움을 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겼던 KIA는 안팎으로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실망감을 더했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KIA는 이번 캠프에서 야수진 백업 육성, 마운드 퍼즐 완성 새 외국인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의 적응에 초점에 맞춰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KIA는 2017년 막강 타선을 앞세워 ‘V11’을 이뤘다. 발목 수술 여파로 이번 캠프에 동행하지 못한 이명기를 제외한 야수진 ‘우승 멤버’ 그대로 이번 캠프를 치른다.

우승 경험이 있는 노련한 야수진이지만, 노쇠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시즌 이렇다 할 백업 선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야수진의 백업 육성은 발등의 불이 됐다.

특히 3루와 유격수 자리가 고민이다. 3루수 이

## 야수 백업 육성

1루 김주찬·3루 이범호 최고참 부상 잦은 김선빈 유격수 대체 無 최원준·문선재 올 시즌 기대주

범호가 김주찬과 함께 팀 최고참이고, 매년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김선빈을 대체할 유격수 자원이 마땅치 않다. 외야 자원이 풍성한 것도 아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최원준 류승현 유민상 홍재호 이창진 최정민 오정환(이상 내야수) 박준태 이은 총 문선재(이상 외야수)가 내·외야의 자리싸움에 뛰어들었다.

특히 최원준과 문선재에 눈길이 간다. 올 시즌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한 최원준은

앞선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목표를 높게 잡았다.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해왔던 최원준은 자신의 4번째 시즌에 대해서는 “주전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시즌 101경기에 출전하면서 쌓은 경험이 최원준에게는 큰 자산

## 마운드 퍼즐 완성

선발 양현종·터너·윌랜드 확정 윤석민·한승혁·임기영 후보 경쟁 코치진 신인 발굴이 성패 좌우

이됐다. 문선재는 ‘트레이드 효과’를 기대케 한다. 앞서 김기태 감독은 몇 차례 트레이드를 통해 재미를 봤다. 문선재 역시 기회를 땅으로 오게 되면서 남다른 각오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마운드의 고민은 더 크다. 약속된 선발은 ‘에이스’ 양현종과 두 외국인 투수 세 명이다. 남은 4-5선발은 물론 마무리 자리도

채워야 한다. 일찌감치 오키나와로 건너가 ‘자체 캠프’를 소화해왔던 윤석민과 함께 한승혁, 임기영이 우선 선발 후보다. 여기에 선발 경험이 있는 이민우, 문경찬과 좌완 신인 김기훈 등도 선발 경쟁 도전자들이다. 마무리 경쟁은 김윤동과 김세현의 양강 구도

## 외국인·신인 적응

선발 불안·얇은 외야 선수층 극복 외국인 선수 3명 전력이 열쇠 투수 고졸 루키들도 시너지 관심

전개될 전망이다. 빈자리가 많고, 도전자들도 많다. 하지만 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마운드다. 지난해에도 KIA는 구상과 다른 선발 고민에 빠졌고, 한승혁이 ‘깜짝 선발’로 역할을 하면서 어렵게 마운드를 꾸려갔다. 시즌 중반에는 ‘최고령 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도 KIA 마운드는 박준표와 임기훈의 부상이라는 약재를 만났다. 어린 투수들이 많은 ‘젊은 마운드’라는 특성상 코치진의 리더십도 마운드의 전력이다.

매년 마운드 고민이 반복되면서 KIA는 이번 시즌 강상수 코치를 영입해 투수 총괄 코치 역할을 맡겼다. 강 총괄 코치와 함께 기존에 마운드 운영

을 담당해왔던 이대진 코치는 젊은 투수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마운드를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다.

KBO리그 데뷔를 위해 위망업에 나서는 새 얼굴들도 이번 캠프의 관심사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했다.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로 선발진을 새로 짠 KIA는 외야에는 제레미 헤즐베이커를 배치한다.

KIA의 선발진이 불안하고, 외야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 선수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은 높다. 팀 성격의 키를 쥐고 있는 세 사람이지만 이들 모두 KBO리그 초보 선수들이다.

한 번에 세 선수가 교체된 만큼 이들이 얼마나 팀에 잘 녹아들고 KBO리그에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팀 성격도 달라질 전망이다.

‘외국인 트리오’와 함께 ‘고졸 루키 트리오’의 빠른 적응도 필요하다.

KIA는 이번 캠프에 앞선 관례를 깨고 김기훈, 장지수, 홍원빈 세 고졸 신인 투수를 데려왔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부상과 사기 저하 등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응과 움직임에도 관심이 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강인 “내 번호는 16번” 발렌시아 1군 정식 등록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소속의 이강인(18)이 1군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발렌시아는 지난 3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1군에 등록했다. 등 번호는 16번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인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데뷔했고, 올해 1월 13일 바야돌리드전에서 교체 출전해 프리메라리가(1부리그)에 데뷔했다.

한국 선수로는 이천수(레알 소시에다드)와 이호진(라싱), 박주영(셀타비고), 김영규(알메리아)에 이은 다섯 번째 스페인 1부리그 신고식이었다.

이강인은 앞서 지난해 7월 발렌시아와 2022년까지 재계약하면서 8000만 유로(약 1029억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광주 FC “승적을 향해” 전훈지 日 오키나와로

프로축구 광주 FC가 2019시즌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광양에서 1차 담금질을 끝낸 광주가 지난 31일 2차 전훈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했다.

광주 선수단은 오는 16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2차 동계훈련을 통해 실전 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된다.

선수들은 총 5차례 진행되는 연습경기를 통해 어필 무대를 갖는다. 광주가 연습 경기 상대에는 이니에스타, 포돌스키 등이 소속돼 있는 비셀고베(J1)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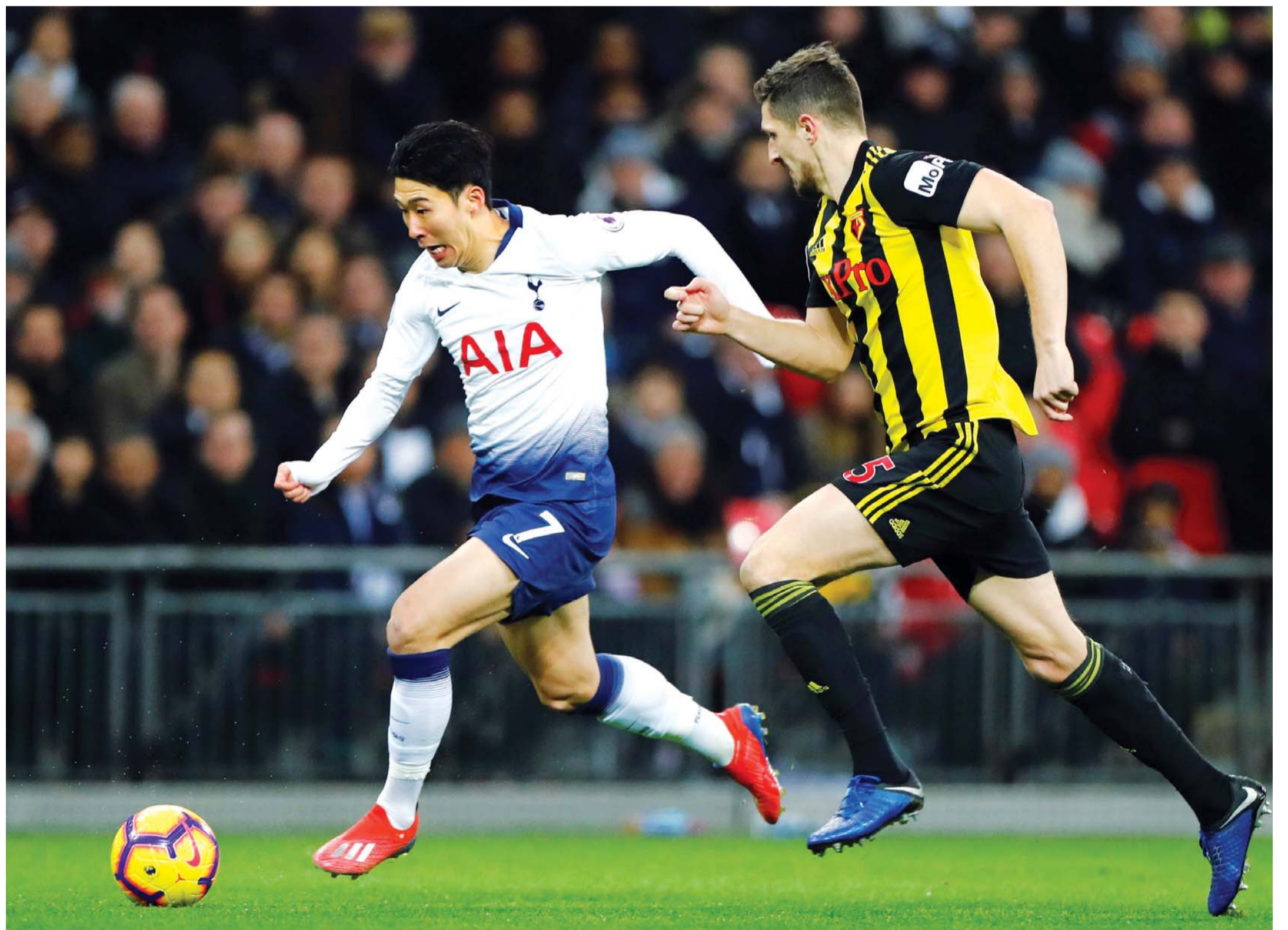
박진섭 감독은 “K리그2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경기를 통해 빠르게 감각을 올려야 한다”며 “강팀과의 스파링으로 우리의 단점을 찾고 보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실력과 조직력, 투쟁심 등도 함께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경쟁을 앞둔 선수들 또한 다부진 각오를 다지며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장 김태운은 “전력이 좋아진 걸 느낀다. 개인 실력 차가 그리 크지 않아 베테랑 선수들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호흡과 조직력이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 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희생하겠다”라고 말했다.

팀의 막내인 정현우는 “고등학교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힘들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이겨내야 경쟁도 할 수 있다. 올 시즌 반드시 그라운드에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쏘니가 돌아왔다”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몰며 달리고 있다. 이날 손흥민은 팀이 0-1로 뒤진 후반 35분 동점 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 9호골 폭발 ... ‘에너지이저’ 쏘니

토트넘 복귀전, 왓퍼드에 2-1 승리 전인...3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1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에서 복귀전에 나선 손흥민(27)이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골을 폭발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지난 31일 열린 왓퍼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0-1로 뒤진 후반 35분 동점 골을 터뜨렸다.

지난 5일 트랜미어 로버스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 이후 나온 이번 시즌 손흥민의 13번째 골이다.

리그만 따지면 2일 카디프시티와의 21라운드 이

후 터진 9호 골로, 손흥민은 세 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바짝 다가섰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까지 소화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다.

한국이 8강에서 카타르에 제 탈락하며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복귀 직후인 28일 FA컵 4라운드 엔 출전하지 못하고 이날 첫 경기에 나서 알토란 같은 골로 기대에 부응했다.

위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3위(승점 54)를 지켰다.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56)를 승점 2 차이로 추격했다.

페르난도 요렌테와 최정방 투톱을 이룬 손흥민은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며 고군분투했다. 전반 9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돌아서며 수비를 제친 뒤 왼발로 감아 찬 것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전반 30분엔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불을 때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오른발로 골대를 노렸으나 벤 포스터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점유율은 높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

던 토트넘은 전반 38분 크레이그 카스카트의 헤딩 골로 먼저 한 골을 얻어 맞았다.

수세에 몰린 토트넘은 후반 8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무사 시소코의 날카로운 오른족 측면 크로스로 요렌테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오른발 슈팅이 무릎에 맞고 위로 뜨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전 중반으로 접어들자 양 팀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토트넘의 패색도 짙어져 갔으나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5분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중앙 혼전 상황속 요렌테에게서 짧게 넘어온 공을 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시원하게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골로 활기를 되찾은 토트넘은 후반 42분 요렌테도 마침내 골 맛을 보며 전세를 뒤집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데니 로즈의 크로스를 요렌테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